

포스트휴먼 시대에서의 인간성과 기술의 관계 변화와 기독교 사회윤리적 책임에 관한 논의

- 포스트휴머니즘 사상들의 비판과 헤프너의 “하나님의 형상론”을
중심으로

안택윤 (서울장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본문

1.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의 이해와 하나님의 형상
2. 트랜스 휴머니즘의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신학적 비평
3. 비판적 휴머니즘의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신학적 비평
4. 포스트휴먼 기술론에 대한 비판과 사회윤리적 책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III.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10>

* 주저자, gift1961@naver.com

• ABSTRACT •

A Discussion of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Humanity and the Christian Social-Ethical Human Responsibility in Posthuman Era: Focused on Hefner's Notion of "Imago Dei" and the Criticism of Posthuman Thoughts

Prof., Ahn, Taekyun (Seoul Jang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technology in the posthuman era. Recognizing the problem with conventional negative perception and examining the positive posthuman thoughts on technology, both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imago dei found a theological alternative to these views. As a result, transhumanism, which pursues immortality beyond human limit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vealed the problem of anthropocentrism and rejection of human finiteness. Although human finiteness is recognized, critical humanism, which identifies cyborg beyond the boundary between human and technology and seeks to establish embodied subjectivity with everything, revealed problems in ambiguity of the subjective role of humans. It also revealed that we are unable to harmonize individuals and groups to connect with social and political reality, despite their respective merits. In order to overcome this, Hefner's concept about imago dei was introduced, and consequently, it was proved that it is an idea that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the ecosystem and technology well. I came to a conclusion that humans have to fulfill our socio-ethical responsibility to realize God's good will through a right relationship with technology and caring for creation was a mission given by God the creator.

Key words: Posthuman, Technology, Transhumanism, Critical Humanism, Imago dei(image of God), Phillip Hefner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일상은 기술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매일 자동차, 버스, 지하철과 같은 이동 기술에 의존하여 살고 있으며 인간의 몸에도 여러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매일 우리는 TV와 유튜브 등 대중매체와 컴퓨터, 핸드폰 등 IT 기술이 낳은 산물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태계 파괴의 여파로 일어난 코로나19가 초래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는 인간이 설정한 가장 기본적인 경계로 여겼던 생명과 물질의 중간존재인 바이러스에 의해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바이러스에 가장 잘 대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방역체계가 가장 발달된 기술정보 데이터 시스템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이다.

이처럼 인간과 생태계의 상호관계를 넘어서 로봇과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소위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다양한 방식의 인간과 기계, 기술의 관계성을 통한 초연결의 세상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 그리고 기술의 새로운 관계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포스트휴니즘(Posthumanism)¹⁾이라 부른다. 최근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하여 갑자기

1) 김재희는 포스트휴머니즘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가 전통적 휴머니즘과 인간주체에 대한 비판적 해체를 시도한 이후 새로운 주체성의 모색이 긴급하게 된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첨단 기술과학이 구체적인 인간 삶의 환경적 조건으로 침투하면서 새로운 주체화의 조건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파주: 아카넷, 2017), 201. 김재희가 잘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대적 주체에 대한 비판적 해체 이후, ‘휴먼’으로부터 ‘포스트휴먼’으로의 이행을 촉발시킨 것은 바로 ‘정보기술과 GNR(Genetic Engineering, Nanotechnology, Robotics)혁명’이다... 오늘날 기술은... 자연을 다루는 단순도구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간 삶의 근본적인 존재조건으로 급부상하였다. 자연적인 것(유기체와 물질)과 인공적인 것(문화와 기계)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하는 사이보그화 작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촉진되고 있다.” 위의 책, 202-3.

나타난 포스트휴먼적인 비대면(Un-contact)의 환경은 우리를 매우 낮은 세계에 살도록 강요하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게 한다. 이러한 포스트휴먼의 시대는 미래의 기술과 연관지어 새로운 인간존재와 사회적 책임의 정립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과 인간 그리고 생태계 전반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 인간론의 입장에서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전통적으로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기독교의 인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 다음 포스트휴머니즘의 지배적인 두 가지 입장인 트랜스휴머니즘과 비판적 휴머니즘에 대한 바른 논의와 신학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주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과 인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는 인간창조론 특히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론”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트랜스휴머니즘과 비판적 휴머니즘을 넘어 포스트휴먼의 기술과의 바른 관계성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인간 사회 전반과 기독교 교회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기술중심의 사회에서 책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를 추구해보고자 한다.

II. 본 문

1.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 기독교의 이해와 하나님의 형상

기술(technology)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최근의 눈부신 기술의 발전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은 이미 그 자체가 인간의 사는 환경이요 생태계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전에는 생태계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계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미생물과 물질의 순환적

상호관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기술중심의 시대에 새롭게 정의되도록 요구받고 있다. “사전적으로 ‘생태계’는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하는 유기체(생명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주변의 비생물적 환경이 유기적인 집합을 이룬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의미한다.”²⁾ 예를 들어 “산업생태계”라는 말처럼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수많은 분야 뒤에 생태계라는 말을 붙여 같이 사는 지구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모든 환경과 연관된 용어가 되었다.

특히 소위 인공지능과 IT, 언택트의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인간이 사는 생태계는 모든 것들이 기술 특히 정보통신과 상호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최배근은 이를 디지털 생태계라고 부른다. “디지털 생태계는 ‘연결의 세계’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등으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 및 더 많은 기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언택트는 단절과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온라인 생태계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새로운 차원의 연결을 의미한다.”³⁾ 이제 연결은 매우 급속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초연결의 기술사회를 포스트휴먼의 사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포스트휴먼의 시대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문명 모두가 관계되어 있는 초연결의 시대이다. 인간과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특히 인간에 대한 관계적 정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창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창세기에 의하면, 만물의 창조는 물질의 세계와 동식물 생명체 그리고 인간의 창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관계를 연결시키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2) 최배근,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과주: 21세기북스, 2020), 27-8.

3) 위의 책, 29.

(*imago dei*)”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창조의 정의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 관계를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최근의 포스트휴먼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미래지향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헤프너(Philip Hefner)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자칫 통념적으로 “인간”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의미로 인식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신 그는 인간은 언제나 그 과정에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은 되어간다(*human becoming*)”를 주장한다.⁴⁾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되어감의 여정은 신앙적, 영적, 실재이다. 왜냐하면 이 여정이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 추구의 깊이까지 내려다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적 여정이 기술화되어 있다는 점이 다.”⁵⁾ 즉 기술은 단지 인간의 유용성과 인공물, 창작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의 전달자이자 표현이며, 인간 본성의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헤프너의 견해를 따르면, 기술은 ‘인간의 되어감’에 필요 불가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존재는 기술적 혁신과 기술을 통한 인간의 계속적 발전의 가능성에 관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실행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점이 거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⁶⁾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쟁들은 기술에 대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미래의 사회에서 인간이 직면할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다.

현대 기독교와 서양사상의 기술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대부분 부정

4) Phillip Hefner, *Technology and Human Becom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5.

5) 위의 책, 21.

6) Graham, Elaine, “In Whose Imag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y and the ‘Ends’ of Humanity,” *Ecotheology*, 11/2 (2006), 172-73.

적이다. 기술을 인간성과 대립적인, 적어도 인간성과 구분되는 것으로 여겨왔으며 따라서 기술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체로 비판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기술화되어 있는 현대기술 문명으로 인간의 개별특성이 무시되거나 사라지고 기술환경에 따른 공통의 규칙에 입각한 천편일률의 행동방식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한다.⁷⁾ 하이데거도 기술이란 세상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가능성들을 정지상태의 예비력으로 모호하게 만들며 모든 것을 어떤 물품이나 상품으로 환원시킴으로 자연을 대상화시키는 특별한 방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⁸⁾

기술에 관한 부정적 반응에 기초한 신학자들은 기술들이 일상의 삶을 점령하여 잠식하고 있다고 본다. 즉 이들은 일련의 편의 가공식품, TV 등 영상매체, 핸드폰의 편리성과 갖가지 노동절약형의 도구들이 전통적인 일상의 삶의 본질적 구조를 구성하는 기능들과 취미활동을 대체해 버렸다는 것이다. 그 결과 기술들이 사람들로부터 기술들의 사회적이고 문화적 콘텍스트와의 관련된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기술들이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의미를 공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⁹⁾

보그만은 이러한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에 더해, “기술의 위험성은 그 나타남, 현상에 있지 않으며 그 패턴의 집요함과 일관성에 있다. 빅맥, TV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에 반대할 수 없으며 인간의 필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믿게 하여... 기술에 의존한 삶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천박함에 의해 (인간이) 스스로 괴로워하게 된다.”¹⁰⁾고 주장한다. 이처럼 그

7) Jacques Ellul, 『기술의 역사』 박광택 역, (과주: 한울, 2011), 342-47.

8) Heidegger, M., “The Question of Technology,” in D.F. Krell (ed) *Basic Writings* (London: Routledge, 1993), 307-42. Elaine Graham, “In Whose Imag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y and the ‘Ends’ of Humanity,” 163.

9) Graham, Elaine, “In Whose Imag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y and the ‘Ends’ of Humanity,” 163.

는 인간이 기술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인간은 독립적이지 못하며 기술에 지배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보그만의 분석은 포이에르바하와 마르크스의 소외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외 개념에 의하면, 기술은 원래 인간 노동의 산물이었지만 이제는 인간 스스로 기술을 따르고 기술의 명령의 대상으로 자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기술에 대한 의존적 경향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그만은 기술의 기원이 인간이므로 기술을 인간의 조작의 실행과 인간 사회 안에 종속시킴으로 원래의 의미로 되돌려놓음으로써 인간 자신들에게로 초점을 돌아가도록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 다시말하면, 기술을 철저히 도구적 존재로 인간사회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레이엄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이들의 “기술에 대한 긍정의 방식은 오직 인간의 자기-실현의 도구로만 용인될 경우로 한정한다. 인간의 행위주체성을 지워버리려 하거나 인간의 진정한 실존에 참여하는 우리의 능력을 위협하게 하기보다는 기술적 분석은 외곺수의 긍정적인 방식으로만 문제해결과 인간의 관심사를 증진시키는 일을 제공하는 것에만 한정시키자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기술의 발명품의 주인이 되고 비인간적 자연의 힘을 지배하고 압도하여 종국적으로는 초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¹²⁾

즉 이러한 보그만의 사고방식이 가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만을 중

10) Albert Borgmann,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Everyday Lif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224.

11) Albert Borgmann, *Power Failure: Christianity in the Culture of Technology* (Grand Rapids, MI: Brazos, 2003), 27. Graham, Elaine, “In Whose Imag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y and the ‘Ends’ of Humanity,” 163.

12) Graham, Elaine, “In Whose Imag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y and the ‘Ends’ of Humanity,” 164.

시하고 기술을 인간과 분리시킴으로써 그의 주장과는 반대로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인 생물학적인 한계와 인간 본연의 정서와 영적인 존재성을 무시하여 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간 기술의 무한 진화를 통하여 인간 자신을 인간의 실존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레이엄에 의하면, 기술을 과대평가하는 자들은 “기술력의 진보를 통하여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들을 가지 있게 여기며 그러한 이해에 도달할 간학문적 접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본다.”¹³⁾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는 기술에 대한 도구주의적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만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과 문화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기술지상주의를 통한 인간의 신적인 영역으로의 도약을 믿든지 모두가 결국은 인간중심주의를 통한 기술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져온다. 이러한 현실인식 아래, 포스트휴먼의 시대적 과제는 기술과의 연관에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면서도 비인간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간과 기술의 대상 사이의 상호적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일찍이 중요하게 보았던 시몽동은 “기술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매개하고 진정한 소통의 역량이라고 역설한다. 그는 특히 인간을 본성상 다른 존재자들보다 특권화시키고 기술을 사용도구나 보철물로 환원시키는 인류학의 태도를 비판하며, 생태주의적 기술공포증이나 테크노크라트적 기술만능주의의 양극단을 벗어나 ‘기술과 인간의 앙상블’을 강조한다.”¹⁴⁾ 이를 위해 나는 먼저 포스트휴먼시대에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검토

13) 위의 논문.

14)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11.

한다.

기술과 연관된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다만 여기에서는 기독교 인간이해와의 관계성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인간이해는 과학기술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선 정보와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인간은 수명의 한계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과 기계의 공존을 인정하면서 인종과 문화, 사상의 다양성과 아울러 인공적인 요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가능하고 자연과 기술의 이분법을 넘어서 완전한 유기체적인 것도 아니고 오직 기계적인 것도 아닌 혼종적(hybridic) 인간으로서 또는 기술환경에 체화된(embodied) 인간상을 주장하는 비판적 휴머니즘이 있다.

2. 트랜스 휴머니즘의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신학적 비평

먼저 보스트롬에 의하면, 트랜스 휴머니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응용된 지능을 통하여 특히 노화를 제거하고 인간의 지적, 물리적, 심리적 능력들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들이 광범위하게 가능하도록 발전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일이 가능하고 바람직함을 단정적으로 주장하는 지적이고 문화적인 운동이다.”¹⁵⁾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다시 디자인 함이 바람직하다고 주

15) Bostrom, N, “The Transhumanist FAQ: A General Introduction.” The World Transhumanist Association, <http://humanityplus.org/learn/transhumanist-faq/>, Nov. 21, 2020. 트랜스 휴머니즘의 선포는 단적으로 인간의 초월을 지향한다. “현 인류의 능력은 급진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는 더 이상 인간으로 되지 않도록 초월함이 가능한 미래의 존재들.” Jeanine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2), 41-2. 트랜스휴머니스트들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유기체를 진보된 나노기술이나 유전공학, 정신약리학, 노화방지 요법, 신경 인터페이스 (사물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경계

장하는 자들을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라고 한다.¹⁶⁾

기존의 휴머니즘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으로서 그 ‘수단과 목적’에서 계몽적 휴머니즘을 넘어가며, 이 전통적 휴머니즘의 ‘human’을 넘어서는 ‘트랜스-휴먼(trans-human)’’으로서의 트랜스휴먼-주의를 주창한다.”¹⁷⁾ 이들은 “우리의 생물학적, 유전적 유산에 의해 부과되어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공학을 적용하고자 한다... 인간 본성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완전한 것으로서... 간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단지 진화론적인 진행에서 하나의 지점일 뿐이고... 바람직하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고치는 것”¹⁸⁾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들에 의하면,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물리생물학적 조건에서 덜 바람직한 측면과 한계들이 극복된 ‘더 향상되고 더 진화된 휴먼’을 의미한다... 질병이나 노화를 겪지 않을 수 있고,.. (인간보다) 더 큰 인지적 능력과 개선된 정서를 가질수 있다... 첨단 기술과학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휴먼’의 역량을 확장시키며 ‘휴먼’의 영구적 진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오직) 초자연적인 힘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하여 인간 본성에 관한 낡은 종교적 형이상학적 이해들과 싸우며 ‘합리성’에 호소한다.”¹⁹⁾

의 하드웨어) 향상된 정보관리 도구들, 기억증진 약품, 웨어러블 컴퓨터 인지기술 등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인간의 유기체를 다시 디자인함이 가능하다.” N. Bostrom, “The Transhumanist FAQ: A General Introduction.”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42.

16)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42.

17)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207.

18) More, M. & Vita-More, N., eds., *The Transhumanist Reader*, (Wiley: Blackwell, 2013), 4.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207.

19)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207-8.

특히 대중의 주목을 받는 트랜스휴머니즘은 소위 “특이점주의(Singularitarianism)”이다. 이 운동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특이점(Singularity)”이란 “기술의 발달이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져서 그 진보의 곡선이 거의 수직적으로 되는” 그래서 트랜스휴먼의 기술들이 인간의 지능보다 더 똑똑한 지능의 컴퓨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²⁰⁾

이제까지 트랜스휴먼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들은 여러 부류의 주장들로 달리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자연으로서의 인간 자체로는 인간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으므로 생물학적 신체의 인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E-mail to Mother Nature”에서 자연적인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웨트-베이츠가 잘 지적하듯이, “이들은 ‘자연적’과 ‘기술적’을 서로 반대로 보는 이분법에 토대를 두고 기술적인 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문제의 해결책이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연은 기존의 선하고, 온전하며,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부터 한계가 있고 상처받기 쉬우며 고통을 준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변질된다.”²¹⁾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논쟁의 와중에 있으며 어쨌든 궁극적으로 트랜스휴머니스트의 주장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은 결국 부적합하고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인공적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생물학적인 한계마저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과신하며 기술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낙관론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기술에 대한 도구주의적 이해와 기술결정론적 태도(기술과학의 진보가 결국 인간의 진보를 결정한다)를 함축한다.”²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생물학적 인간

20) Bostrom, “The Transhumanist FAQ,”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52.

21)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55.

존재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면서도 역설적으로는 탈 인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적 사고를 통한 기술과학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낮은 계몽주의의 유산인 개인주의, 인간중심적 휴머니즘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에 대한 신학적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휴의 주장에서 나타나듯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 스스로 계몽주의 휴머니즘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므로 결국 유신론적 트랜스휴머니스트는 될 수 없다.”²³⁾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대체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들의 생각에 의하면, 신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대로 방치하며 다만 고통을 덕의 시금석으로 죽음을 사후의 삶의 필수요건으로 삼으면서 자연적인 악인 고통과 죽음에 체념을 유도하는 것으로 본다.²⁴⁾ 신앙의 무용론에 의한 이러한 세속적 회의주의는 인간 이성으로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모던의 이성중심주의의 존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22)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208.

23) Hughes, James, “The Compatibility of Religious and Transhumanist Views of Metaphysics, Suffering, Virtue and Transcendence in an Enchanted Future,” *The Global Spiral* 8/2 (2007) Jeanine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58.

24) Simon Young, *Designer Evolution: A Transhumanist Manifesto*, (Elmherst, NY: Prometheus Books, 2006), 49,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59. 이처럼 유신론은 우리 스스로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실패하지만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생물학적인 불가피성에 스스로 체념하기를 거부하고 기술로 이를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주장한다. S. Young, *Designer Evolution*, 52.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59. 이처럼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조건의 한계를 넘어서는데 인간의 행위주체의 필연성과 효용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에 의존을 선언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훼손한다고 종교적 신앙을 비난한다.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59.

더 나아가서 우리는 워터스의 주장을 따라 “신학의 교리는 인간조건의 슬픔과 한계들은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죽음을 물리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성의 나아짐 혹은 완전성은 몸을 부정함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육체적 인간성을 받아들이고 구속함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다.”²⁵⁾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트랜스휴머니스트의 주장은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무신론적인 개인주의, 인간중심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인간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태계와 기술과의 관계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온갖 기술들과 노력들이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육체성과 유한성도 철저히 거부되고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멸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경지에까지 도달하려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다.

3. 비판적 휴머니즘의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신학적 비평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포스트휴먼의 목표를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고 ‘특이점’을 넘어섬을 통해서 인간의 합리적 이성과 자율성을 최고조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이다. 이에 반해, 비판적 휴머니스트들도 기술과 문화적 발전에 호의적이지만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주장과 달리 기술을 단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불멸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하는 인간중심적인 방식을

25) Graham, Elaine, “In Whose Imag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y and the ‘Ends’ of Humanity,” 165. from Waters, Brent, “From Imago Dei to Technosapiens? The Theological Challenge of Transhumanism” (unpublished paper), 2004.

비판하면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양자의 상호업힘과 분리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인간-비인간의 혼종(hybrid)‘로서의 존재를 새로운 실재로서 인정하는 것이다.”²⁶⁾ 이처럼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계몽주의 이후의 모던의 인간중심적 휴머니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 밖의 ‘타자’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중 인간을 다른 존재들의 집단과의 관련에서 혼종적(하이브리드) 존재로 고려하는 비판적 휴머니즘을 사이보그 휴머니즘이라고 한다. 이를 대표하는 해러웨이(Donna Haraway)는 21세기의 인간은 기계와 유기체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사이보그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현대 의학은 온통 사이보그로 되어있으며 유기체와 기계가 짝이 되어 각각이 코드화된 기구들로 여겨진다.”²⁷⁾ 트웨트-베이츠(Tweatt-Bates)도 해러웨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유기체와 기계적인 존재들이 모두가 ‘코드화된 장치’라는 생각이 기계적 존재와 유기체의 합체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유기체와 기계적인 존재를 스스로-규제하는 정보체계라고 하는 사이버네틱²⁸⁾적인 이해방식은 부분적으로 유기체적이고 부분적으로 기계적인 존재가 하나의 구성단위로 기능하는 체계를 마음에 그리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개념적 행동이며 이것이 원래의 사이보그이

26)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205.

27) Haraway, Donna,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 150.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17.

28) 생물 및 기계를 포함하는 계(系)에서 제어와 통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생물체 신경계의 연구를 기계의 제어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정보이론, 자동제어 이론, 자동컴퓨터 이론 등에 사용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7784&cid=40942&categoryId=32848>. 네이버 검색어 “사이버네틱스” 2020년 11월 15일 검색.

다.”²⁹⁾

트웨트-베이츠는 해러웨이를 인용하면서 “우리의 몸을 기계적 장치들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의 ‘코드화된 장치들’로 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인간의 자율성, 자유의지, 그리고 개인적 행위주체와 같은 개념들의 전복에 초대한다.”³⁰⁾고 주장한다. 그는 “유기체와 기계 간의 경계의 무너짐의 하위집합으로서 해러웨이는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의 경계도 무너짐을 암시한다.”³¹⁾라고 덧붙인다.

클라크(Andy Clark)도 기술과 연관지어 특히 가상공간과 연관지어 인간성이 자신을 확장시키고 환경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시킨다는 의미에서 “자연적으로-타고난 사이보그”³²⁾이며 “그 마음과 자아가 생물학적 두뇌와 비-생물학적 회로의 경계를 가로질러 펼쳐져 있는 사유의 체계”³³⁾로서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불가피한 미래라고 본다. 앞으로의 시대에 진정한 생태화는 ‘인간-비인간의 연결’로 이어지는 인간과 기술의 조화라고³⁴⁾ 보는 라투르의 견해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9)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18. 이러한 사이보그의 예 중에서 트웨트-베이츠는 “의학적 사이보그”를 그 예로 든다. 이 용어는 “Chris H. Gray의 분석에 나오는 용어인데,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생존을 위한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계장치에 의존하는 개인들을 의학적 사이보그로서... 기계적인 것과 유기체적인 부분들이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구성단위로 비친다는 것이다.... 동시에 많은 이들이 동시에 자아에 대한 필수적인 재정의를 위한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는데 이는 기계적인 요소들에 그들이 의존하는 자신과 그 기계적 요소들을 자신의 정체성의 부분으로 포함시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기계장치에의 의존성은 그들의 해방의 뒤집어진 반대편이다. 즉 그들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는 의학적 사이보그는 이러한 해방이 그들이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메카니즘에 의존한 결과하는 것이다.” 위의 책, 19.

30)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19.

31) 위의 책, 19.

32) Andy Clark, *Natural-Born Cyborg*, 『내추럴-본 사이보그: 마음, 기술, 그리고 인간 지능의 미래』 신상규 역, (파주: 아카넷, 2015).

33) 위의 책, 10.

34) 브루노 라투르 외, 『과학인문학 편지』 이세진 역, (서울: 사월의 책, 2010), 138.

혼종적 사이보그 휴머니즘에 대한 전통적인 반대는 주로 다른 존재와 섞이지 않는 인간만을 인간의 존엄성으로서의 참된 인간으로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신체와 기술의 통합체로서의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를 막은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인간을 여타의 다른 존재들과 분리시키는 이른바 인간중심적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인간의 유일성(unicqueness) 내지는 인간의 독특성이라는 오래된 생각일 것이다. 인간의 유일성을 문제로 보는 트웨트-베이즈는 “인간과 인간-아님의 경계는 자의적으로 된, 구성된 것이지 정해진, 당연시될 만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³⁵⁾라고 주장한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인간론이 “사이보그의 혼종적 전형을 자연과 문화,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들, 자아와 타자, 남자와 여자의 구분과 같이 따져 그 범주적 경계의 물음으로 해체시킨다.... 잠재적으로 역설적이게도 기존관념을 뒤집는 존재론적으로 치료적인 측면을 사이보그에서 발견한다.”³⁶⁾고 본다. 분명 이러한 주장들이 구분을 넘어 분리와 차별을 조장하는 사고에 대해 해방적, 치료적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이보그의 모델이 가진 문제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들의 구분마저 해체함으로 가져다 줄 위험성과 연관되어 있다. 헤일스(N. Katherine Hayles)는 정보기술에 관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이보그 모델이 가진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본다. 첫째, 사이보그적 휴머니즘이 보여주는 자유주의적인 휴머니즘은 소위 “탈 물질화된 정보 개념의 수립과 항구성 개념(으로서).. 수학적, 논리적 패턴이다.”³⁷⁾ 이러한 경우 “정보는 현존이 아닌 패턴이며, 메시지를 구성하는 부호와 요소들의 확률분포에 의해 정의된다.”³⁸⁾ 인간과 기계기

35)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24-5.

36) 위의 책, 25.

37)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213.

술을 모두 사이버네틱적인 혼종적 코드의 패턴으로 이해하는 사이보그의 인간이해는 그간 차이의 강조로 차별을 받아온 자연과 기술등 인간이외의 타자, 힘없는 자들을 위한 치료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구분을 지워버리고 인간의 독특한 역할을 희석시킬 위험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개별자들을 따로따로 창조함으로써 그 고유의 역할도 존중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이보그 인간론을 천명한 해러웨이에겐 신적 존재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해러웨이는 ‘구원사의 외부’로서 사이보그를 기술함으로 이러한 종교적 묵시론적인 수사들을 비판적으로 관여한다. “본래의 온전함, 뒤이은 일탈과 죄, 궁극적 구원과 회복과 같은 전형적인 목적론적인 담론을 거부하면서 해러웨이는 사이보그가 ‘에덴동산의 회복을 통하여 성부가 구원해주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에덴동산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단지 흠으로 되어있으며 그 흠으로 다시 돌아감을 꿈꾸지 않을 것이다.”³⁹⁾

이러한 혼종적 사이보그 인간론의 주장은 포스트휴먼 시대에 기계와 기술 문명에 친화적인 인간론을 넘어서 이제는 인간과 기술의 합체적 주장이라고 볼 때,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논의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 전체에 책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인간론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인간을 자연적 사이보그라고 보는 혼종적 사이보그 휴머니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코드화 되는 혼종적 존재로 구분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을 견해로 귀결된 위험이 있으며 그 결과 트랜스휴머니즘이 주장하

38) K. Hayles, *How we become posthuman*, (Chicago: Univ. of Chicago, 1999), 25.

39) Haraway, Donna,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151.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32.

는 정보패턴으로 결국 영구히 존재할 기계화된 인간에 대한 주장⁴⁰⁾을 비판할 논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주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비판적 휴머니즘의 또 다른 한 축의 대표자인 헤일스는 현대 기술문명, 특히 사이버네틱스의 발전사를 통해서 인간은 이미 포스트휴먼적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컴퓨터 스크린을 스크롤해 가면서 명멸하는 기표들을 응시할 때, 당신은 이미 포스트휴먼이 되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신체화된 개체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느냐와는 전혀 상관없다.”⁴¹⁾

그에게는 사이보그보다 주체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포스트휴먼이 되기 위해서 주체가 반드시 말 그대로 사이보그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신체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인지과학이나 인공 생명 분야에서 등장한 새로운 주체성 모델에서는 생물학적 변화가 없는 호모 사피엔스도 포스트휴먼으로 간주될 수 있다.”⁴²⁾ 인간의 주체를 자아와 환경의 통합을 통해서 재정의하는 일은 기술적-생물학적 통합체를 그저 실천적인 문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나아가도록 한다. 신상규에 의하면 클락도 인간의 인지는 언제나 자신의 주변의 기술의 다양함이라는 환경의 뒷받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기술은 우리 인간 정신 및 신체의 확장이며, 생명과 기술의 병합은 그 근본에서부터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본질적 특성이다.”⁴³⁾ 라고 본다.

기술환경과 관계하는 인간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계몽주의와 모던의

40) K. Hayles, *How we become posthuman*,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과주: 플래닛, 2013), 14-5.

41) 위의 책, 18.

42) 위의 책, 26.

43) Andy Clark, 『내추럴-본 사이보그』, 317.

인간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해 헤일스는 몸(body) 대신에 체현(embodiment)을 내세운다. 모던의 육체-정신의 이원론의 문제의 극복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의 체현과 체화를 강조하며, 포스트휴먼은 탈-신체화된 사이보그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환경 속에서 휴먼과 다른 방식으로 체현되고 체화된 주체라고 주장한다.”⁴⁴⁾

헤일스는 사이보그 휴머니즘처럼 몸에 집착하면 육체와 기술정보를 분리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포스트휴먼의 확장된 주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포스트휴먼의 “주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발적이고, 의식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으며, 혼돈스러운 세상과 동떨어진 지배와 제어의 위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나와서 그 세상과 통합된다.”⁴⁵⁾ 이처럼 헤일스의 체현-분산의 주체성 주장은 모던의 정신-육체의 이원론과 신체성에 묶여 있는 사이보그 휴머니즘을 넘어 포스트휴먼 시대에 신체와 기술환경의 네트워크, 물질과 비물질의 분리를 넘어 인간의 주체성을 재정립하는데 공헌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헤일스의 견해도 정치-경제적인 주체적 역할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가 없다. “주체의 삶에 작동하는 기술-자본-권력 네트워크의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이에 대항하는 주체의 집단적 역량에 대한 고민이 없다.”⁴⁶⁾ 더 나아가서 인간-기계의 상호작용이, 헤일스의 경우, “인간의 필요에 의한 도구적 만남”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기 쉬우며 “소비자본주의의 테크노 나르시시즘”이라고 비판하는 김재희는 이의 극복을 위해 “진개체적 실재성에 근거한 개체초월적 관계”⁴⁷⁾를 주장한다.

44)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215.

45) K. Hayles,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509.

46)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217-28.

개체초월적 관계란 인간중심주의 내지는 개체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기존의 휴머니즘을 극복함과 동시에 집단주의로 호를 위험도 방지하기 위하여 '개체와 집단의 범주를 넘어서 소통'을 제안한다. 즉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개체들과 전체 집단 사이의 "내적 공명"을 이루어내는 "횡단적 소통"을 말한다.⁴⁸⁾ 여기에서 말하는 "집단 속에서의 횡단성이란,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수직성과 대립하며, 개성들이 사라진 수평성과도 대립된다."⁴⁹⁾

이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독특한 역할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개체들이 함께 평화(shalom)를 이루는 하나님 형상론과 연관시켜 논의할 수 있다. 즉 세 위격들의 개체성과 동시에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의 사회성으로 정의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또한 모든 인간 각각의 개별적 존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생명체와 기술 그리고 물질 등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인간의 개체적 주관성과 아울러 자연과 기술의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4. 포스트휴먼 인간론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인간과 비인간 특히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포스트휴먼적인 사고와 토론을 트랜스 휴머니즘과 비판적 휴머니즘 모델을 넘어서 새로운 기독교

47) 위의 책, 218.

48) 위의 책, 221. 이 사상은 시몽동(Gilbert Simondon)의 개체화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개체란 질료와 형상의 결합으로 단면에 완성되는 독립적 실체가 아니라, 문제해결의 '개체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면서 또한 자신의 발생적 조건을 구성하는 환경의 이질적 요소들과 분리될 수 없는 '관계적 실체'이다. (따라서) 모든 개체는 유기적이든 비유기적이든 주어진 장(場) 안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解)로서 발생한다." 위의 책, 233.

49) 위의 책, 223.

인간학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간과 기술에 대한 기존의 고정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역동적인 관계”로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도 고정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발전하는 역동적인 되어 감의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속한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되어가는 존재이다.⁵⁰⁾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체성과 일체성을 통해 사회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개체성을 넘어 타 존재를 향하도록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트랜스 휴머니즘이 오직 인간만을 위한 기술의 발전을 요구하는 인간 중심주의적 기술 만능주의가 문제이고 비판적 휴머니즘이 타 존재와의 존중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하여 인간이 가진 독특한 역할과 사회윤리적 책임의 문제에 실패한다면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 문명과의 관계를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조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는 주로 관계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를 통해서 인간과 자연과 기술의 연관성에 주목하는 포스트휴먼 기독교 인간 이해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나는 인간의 기술과의 관계에 관한 신학적 논의는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에 대한 위임 통치와 관계있다고 본다. 즉 인간이 기술과 관계된 존재라면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기술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위임 받은 임무라는 이해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견해⁵¹⁾에 나는

50) W. Pannenberg, *Systematische Theologie II*, 『조직신학 II』 신준호, 안희철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406.

51) Garner, Stephen, “Transhumanism and the Imago Dei: Narratives of Apprehension and Hope”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uckland, 2006) 111-12.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동의 한다. 나는 이러한 해석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공동창조자 (created co-creator)”⁵²⁾로 표현한 헤프너의 주장과 연관된다고 본다. 이 표현이 가지는 특징은 하나님의 행위주체와 유비적인 그리고 대리로서의 인간의 행위자 주체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헤프너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회상케하는 한 방식으로 인간이 피조물을 향하여 그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⁵³⁾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자유로운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본성과 유비적임을 그래서 “자유로운 창조자로서 인간은 그 의미와 행동에 걸맞은 책임이 있다.”⁵⁴⁾고 한다. 여기에서 자유란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기술문명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이란 보편적이며 불가피한 것이다. 기술문명은 생활을 너무나 급진적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인간만이 의사결정의 필연성과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스토리 구축을 할 수 있다.⁵⁵⁾ 문제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타인과 생태계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관계성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의 중요성을 감지한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존재인 것이다. 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존재라는 말은 소위 그의 ‘관계유비’를 통하여 하나님 자

Posthuman, 113.

52) 헤프너는 “호모사피엔스는 창조된 공동창조자이며 그의 목적은 자연의 체계들을 확장하거나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들이 자유의 양태로 신의 목적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Hefner, Phillip, “생명문화적 진화와 창조된 공동창조자,” 윤철호 역, in Peters, T. eds. *Science and Theology*. 『과학과 종교: 새로운 공명』, (서울: 동연, 2002), 299, 300-20. 참조.

53) Phillip Hefner, *The Human Factor: Evolution, Culture, and Religion*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238.

54) 위의 책, 239.

55) 위의 책, 38-9.

신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도 역시 관계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⁵⁶⁾에 주목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상대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⁵⁷⁾ 하나님의 형상이란 따라서 인간이 소유한 어떤 형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관계를 위한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 관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차적이요, 그 다음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가 그것이다.⁵⁸⁾ 이 관계는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여타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로 연결된다.

나는 헤프너가 이제 우리는 인간을 자연과 기술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장벽이 무너지고 따라서 이러한 영역들의 경계들을 가로질러 인간과 기술들도 일련의 자연의 가능성들이라고⁵⁹⁾ 말한 것과 인간이 피조물에 뿌리박고 있음을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도구들, 기술들과 더불어서 공동으로 발전해왔다는 그레이엄의 주장⁶⁰⁾이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헤프너의 하나님 형상이해를 따라 인간은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자연의 본성을 연관시키고 자연과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지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해야 할 사명⁶¹⁾이 있음을 바르게 새겨야 한다.

헤프너의 하나님 형상론에 대한 신학적 비판은 주로 전통적인 기독교

56) Karl Barth, *Kirchlich Dogmatik*, 『교회교의학 3-2: 창조에 관한 교의』 오영석, 황정옥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381.

57) Noreen Herzfeld, *In Our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Spiri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25.

58) 위의 책, 26.

59) Phillip Hefner, *Technology and Human Becoming*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3), 77.

60) Graham, Elaine, "In Whose Imag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y and the 'Ends'," 177.

61) Hefner, Phillip, "생명문화적 진화와 창조된 공동창조자," 314-15. 참조.

신론에서 “헤프너의 형상론이 인간을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지하기보다는 과도하게 신적 창의성에 대한 (인간의) 발생적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⁶²⁾는 주장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헤프너에 대한 비판은, 트웨트-베이츠가 잘 지적하듯이, 인간의 창조적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론의 거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위협이다. 알고 보면 이들의 비판은 헤프너의 “공동창조자” 개념이 인간을 자기-지시적 자기-창조자로 향하게 한다는 오해⁶³⁾의 결과인 것이다. 헤프너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며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규정을 향하는 인간의 성향은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전개하도록 그 자신에게 맡겨져 있지 않다. 자신의 규정을 향한 도상에서, 그리고 그 규정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결코 이미 완성된 주체가 아니며... 역사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이미 존재하는 그것(피조물)으로 되어가는 중이다.”⁶⁴⁾

따라서 우리는 헤프너의 “창조된 공동창조자”가 인간의 지나친 자신감이라든지 혹은 인간이 스스로 방향지으려는 경향을 조장한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이 피조물의 미래의 가능성을 마음에 그리도록 부르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비전들도 흠이 있음을 말한다. 인간의 위협성은 오히려 하나님 주신 창조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 주변으로만 폐쇄되어 타자-지향보다는 ‘자기-지향’이 되는 것이다.”⁶⁵⁾

62) Brent Waters, *From Human to Posthuman: Christian Theology and Technology in a Postmodern World*, (Burlington, VT: Ashgate, 2006), 102-3.

63)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127.

64) W. Pannenberg, 『조직신학 II』, 405.

65) Hefner, Phillip, “The Animal That Aspires to Be an Angel: The Challenge of Transhumanism,” *Dialogue: A Journal of Theology* 48/2 (2009), 166.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127.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자로의 개방성과 자이중심의 경향이 긴장과

동시에 헤프너가 말하는 ‘타자-지향’은 인간의 피조물됨, 즉 자연에 뿌리박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창조된”은 인간의 조건지어짐으로서의 “규정성(conditionedness)”으로서 “공동창조자”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간이 지나간 생물학적이고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통하여 출현했으며 복잡한 생태적이고 문화적/기술적 환경에 뿌리박혀있는 의존적 존재로서 이에 인간생명도 달려 있음⁶⁶⁾을 의미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능적, 관계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연과 문화, 기술의 세계에 뿌리박고 있는 존재로서 이들과 연대하며 상호연관성을 가져야 한다.⁶⁷⁾ 이를 위해서 인간은 기술을 전유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정의와 위험 요소들을 인지하면서 도덕적 긴급함⁶⁸⁾도 인정해야 한다.

자연과 문화에 뿌리박힌 존재로서 또 기술을 통해 생태계를 돌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중적인 역할의 모델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 안의 성자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만물의 창조자이시지만(골 1:15-20)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신(빌 2:5-8)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지향의 방식으로 기술로 생태계와 관계를 맺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만물을 창조

갈등 가운데 있는데 그 중 자신의 자아 안에 폐쇄되어 있는 것을 죄이다. W. Pannenberg, *Was ist der Mensch?*,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학적 시각으로 본 현대인류학』 유진열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10), 86-7. 판넨베르크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인간 스스로 자신 안에서는 극복할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을 통해 받는 책임감으로 타자를 향한 용기를 내는 믿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위의 책, 89-92.

66)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128.

67) Garner, S., “Transhumanism and the *Imago Dei*,”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uckland, 2006), 259.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129.

68) J. Tweatt-Bates,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129.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과 화해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나머지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부름에 응함으로써 하나님 형상⁶⁹⁾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은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적 능력들을 발휘하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동료 인간들과 피조물에 봉사하는 형태로만 행해져야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사회에 공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말함은 따라서 인간과 자연 생태계 그리고 기술에까지 연결된 생태계 전체와의 관련성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은 그 도구적 유용성을 넘어 자연과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신앙이 합당하도록 연관된 존재로 여기야 하며 인간의 가치도 생태계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할 책임적 존재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고유한 계획이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목적에 의존하며 이를 향해가는 것이 될 때에만 포스트휴먼의 시대가 가져다 줄 충격을 넘어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올바른 비전이 될 것이다. 미래에 이에 대한 더 깊고 상세한 성찰이 우리에게 계속 요구될 것이다.

III. 나가는 말

이상에서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초연결사회를 지나 포스트휴먼 사회에 급변하는 기술력과의 관계에서 바람직한 인간이해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기술이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기술을 비인간적인 도구로만 인식하며 이를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기술의 자의적 발전을 방조하여 모던적인 기술혐오 혹은 기술중심주의라

69) Karl Barth, 『교회교의학 3-2: 창조에 관한 교의』, 406 참조.

는 극단적 결과로 나타난 한계를 드러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과의 긍정적 관계를 추구하는 포스트휴머니즘이 등장한다. 그중 먼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경감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 불멸의 존재를 목표로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의 긍정이 탈인간화를 가속화시키면서도 역설적으로 그 목표를 기술의 도구화를 통한 인간의 욕망만을 최대치로 높이는 인간중심주의로 흐르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유한성을 창조주의 역할을 부정하는데로 나아갔다.

트랜스휴머니즘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생태계와 기계기술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비판적 휴머니즘이 등장한다. 먼저 유기체-기계계의 경계를 해체하고 사이버네틱 코드로 하나가 된다는 혼종적 휴머니즘은 인간은 본성상 타고난 사이보그라 주장하면서 인간과 기계기술의 조화를 가져다주며 인간의 계층, 인종, 성 그리고 생태계와 기술과의 관계에서 어느 부분도 억압당하지 않는 인간상을 그려내지만 생태계 내에서의 인간의 주체적 독특한 역할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를 비판하고 인간 이외의 타자와의 전체적인 체현-분산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헤일리의 비판적 휴머니즘은 사이보그 인간론의 코드론을 극복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주체성은 사회-정치-경제적 현실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개체와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책임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중심의 사회에서 인간을 하나님과 타인들 그리고 생태계와 기술과의 관계에서 되어가는 존재로 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책임적 인간이해를 위해 도입된 헤프너의 “창조된 공동 창조자”라는 하나님의 형상이해는 이해는 급변하는

기술사회에서 역동적인 기독교 인간이해를 가져다 준다. 이 형상론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전의 인간중심주의와 자기폐쇄적인 인간상을 넘어 인간 이외의 타자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적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리하여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재희. 『시몽동의 기술철학: 포스트휴먼 사회를 위한 청사진』. 파주: 아카넷, 2017.
- 최배근.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파주: 12세기북스, 2020.
- Barth, Karl. *Kirchlich Dogmatik*, 『교회교의학 3-2: 창조에 관한 교의』. 오영석, 황정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7.
- Clark, Andy. *Natural-Born Cyborg*. 『내추럴-본 사이보그: 마음, 기술, 그리고 인간 지능의 미래』. 신상규 역. 파주: 아카넷, 2015.
- Ellul, Jacques. *History of Technology*. 『기술의 역사』. 박광덕 역. 파주: 한울, 2011.
- Hayles, K. *How we become Posthuman*.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파주: 플래닛, 2013.
- Hefner, Phillip. “생명문화적 진화와 창조된 공동창조자.” 윤철호 역. Peters, T., eds. *Science and Theology*. 『과학과 종교: 새로운 공명』. 서울: 동연, 2002. 299-321.
- Pannenberg, W. *Systematische Theologie*. 『조직신학 II』. 신준호, 안희철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_____. *Was ist der Mensch?*.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학적 시각으로 본 현대인류학』. 유진열 역. 서울: 쿰란출판사, 2010.
- Borgmann, Albert. *Technology and the Character of Everyday Life*. Chicago: University Press, 1984.
- _____. *Power Failure: Christianity in the Culture of Technology*. Grand Rapids, MI: Brazos, 2003.
- Bostrom, N. “The Transhumanist FAQ: A General Introduction.” The World Transhumanist Association. <http://humanityplus.org/learn/transhumanist-faq/>.
- Garner, Stephen. “Transhumanism and the Imago Dei: Narratives of Apprehension and Hope.”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uckland.

2006.

- Graham, Elaine. "In Whose Image? Representations of Technology and the 'Ends' of Humanity." *Ecotheology*. 11/2(2006). 159-82.
- Haraway, Donna. "A Cyborg Manifesto: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in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 149-81.
- Hefner, Phillip. "The Animal That Aspires to Be an Angel: The Challenge of Transhumanism." *Dialogue: A Journal of Theology*. 48/2(2009). 158-67.
- _____. *Technology and Human Becoming*,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_____. *The Human Factor: Evolution, Culture, and Religion*,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 Herzfeld, Noreen. *In Our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Spiri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Hughes, James. "The Compatibility of Religious and Transhumanist Views of Metaphysics, Suffering, Virtue and Transcendence in an Enchanted Future." *The Global Spiral*. 8(2007). www.metanexus.net/megazine.tabid/68/id/9930/Default.aspx.
- More, M. & Vita-More, N. ed. *The Transhumanist Reader*. Wiley: Blackwell, 2013.
- Tweatt-Bates, Jeanine. *Cyborg Selves: A Theological Anthropology of the Posthum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2.
- Waters, Brent. *From Human to Posthuman: Christian Theology and Technology in a Postmodern World*. Burlington, VT: Ashgate, 2006.
- Young, Simon. *Designer Evolution: A Transhumanist Manifesto*. Elmherst, NY: Prometheus Books, 2006.

논문투고일: 2021년 02월 26일

심사개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21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의 목적은 포스트휴먼의 시대에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종래의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기독교의 인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포스트휴먼사상들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에 이를 극복할 신학적 대안을 하나님의 형상론에서 찾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성적 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 불멸을 추구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중심주의와 유한성 거부의 문제가 드러났고 인간의 유한성은 인정하지만 인간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 사이보그가 된대거나 기술을 포함한 모든 것과의 체현적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비판적 휴머니즘은 각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주체적 역할의 모호함과 개체와 집단의 조화, 사회 정치적 현실과의 연관에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헤프너의 하나님 형상론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과 생태계와 기술과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사상임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비판들도 섭리론으로 이겨내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 인간 이외의 타자를 돌봄을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임무로 알고 기술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시킬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주제어: 포스트휴먼, 기술, 하나님의 형상, 트랜스휴머니즘, 비판적 휴머니즘, 필립 헤프너
